"고개 숙이지 말아요… 파이팅"

'캡틴' 손흥민 등 선수 9명 어제 귀국
공항 모인 팬들 "고생했다"며 격려
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말 아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LAFC) 등 일부 선수들이 팬들의 격려 속에 귀국했다.

이번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손흥민 등 선수 9명은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표팀은 월드컵 일정을 마친 뒤 몇 개 조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8명이 먼저 귀국했고, 이날 손흥민을 비롯해 이동경(울산), 김진규(전북), 이한범(미트윌란), 이태석(빈), 이기혁(강원), 배준호(스토크), 조위제, 강상윤(이상 전북) 등이 귀국했다.

이날 선수들이 탑승한 항공편은 새벽 4시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공항에는 새벽 2시부터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자리 잡고 선수들을 기다렸다.

비행기가 도착할 즈음에는 팬들과 호기심에 모여든 시민 등 50여 명이 게이트 주변을 채웠다.

손흥민과 엄지성, 김승규, 송범근이 먼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나머지 선수들은 약 20분 간격을 두고 후발대로 들어왔다.

손흥민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밤을 지새우며 대기하던 팬들은 "고생하셨어요", "파이팅", "고개 숙이지 말아요" 등을 외치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선수들은 입국장을 빠져나와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게이트로 향했다.

손흥민은 아쉬운 심정과 팬들에게 남길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공항 분위기는 전날 귀국한 홍 감독 일행을 향해 300여 명의 팬이 몰려 거센 야유를 보냈던 것과는 대비를 이뤘다.

팬들은 각자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재성 힘내', '평생 가자 손흥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선수들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일 선수 8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서귀포시청 김일현 원반던지기 은메달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원반던지기 김일현(서귀포시청·사진)이 제2회 KTFL 회장배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일 서귀포체육회에 따르면 김일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 53.91m로 김동혁(괴산군청, 55.39m)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올해 서귀포시청에 입단한 김일현은 지난 5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열린 '제30회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이번 기록에 못미치는 52.08m의 기록으로도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김일현은 이후 김동혁과 우승 경쟁에서 밀리며 아쉽게도 은메달에 머물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8월 4일 제주SK vs 뮌헨 '뜨거운 관심'

제주도민·SK 팬 대상 입장권 5분 만에 매진

제주SK FC는 오는 8월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SK FC와 FC 바이에른 뮌헨의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예매 티켓이 예매 시작 5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제주도민과 제주SK FC 팬을 대상으로 크림(KREAM)에서 진행된 선예매는 준비된 모든 좌석이 단시간에 매진되며 이번 경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선예매는 제주도민과 제주SK FC 팬에게 우선 예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예매 경기 티켓 구매자(3등석 제외)에게는 8월 3일 바이에른 뮌헨 오픈 트레이닝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 최정상 클럽 바이에른 뮌헨의 첫 제주 방문으로 성사된 이번 친선경기는 제주 축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자룡 제주SK FC 대표이사는 "이번 친선경기가 제주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구 축제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철 제주SK FC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는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쳐 제주도민과 팬들에게 좋은 경기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2일에는 일반 예매 관련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 예매는 14일부터 크림(KREAM)과 네이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SK F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 가격은 프리미엄 B석 32만5000원, 프리미엄 C석 30만9000원, 1등석 B석 16만9000원, 2등석 A석 11만5000원, 2등석 B석 9만5000원 등이다. 위영석기자

손흥민 향한 벤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믿음

"태극마크 계속 자랑스러워할 것"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안고 일찍 짐을 싼 태극전사들에게 벤투 전 감독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보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친 대표팀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벤투 전 감독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회 한국의 조별리그 경기를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는 "지금은 무척 힘든 시기이겠지만, 선수들이 시련을 극복해 낼 것이고, 다시 국민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내가 지도했던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표팀을 위해 뛰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부임한 벤투 전 감독은 약 4년 4개월 동안 지휘봉을 잡은 단일 임기기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이다.

그는 4년의 여정을 뚝심 있게 이끌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의 대회 16강 진출을 이끌었고, 재계약 없이 팀을 떠났다.

그의 재임 시절 주축으로 중용됐던 황인범(페예노르트)은 이번 대회에서도 핵심 미드필더로 나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쳤고, 카타르 대회 당시 예비 선수로 동행했던 오현규(베식타시)는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제자들의 활약상은 이어졌다.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4년 전 안면 골절 부상 속에서도 그라운드를 누볐던 손흥민(LAFC)은 이번 대회에서도 주장의 무게를 감당하며 공격진을 이끌었다.

벤투 전 감독은 손흥민을 향해 "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단 한 두 명의 선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감쌌다.

손흥민을 두고 "쏘니(손흥민의 애칭)가 조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국가대표로 뛴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쏘니는 앞으로도 국가대표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태극마크를 다는 것을 계속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정후 4타수 무안타
시즌타율 0.316으로 '뚝'

뜨거웠던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방망이가 조금씩 식고 있다.

이정후는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시즌 타율이 0.316(291타수 92안타)으로 떨어졌다.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후는 2회초 첫 타석에서 애리조나 선발 브랜든 파아트를 상대했으나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0-6으로 뒤진 4회초 1사 1루에서는 1루수 병살타를 쳤다.

샌프란시스코가 2-6으로 추격한 7회초에는 3루수 땅볼에 그쳤고 9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연합뉴스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 가입 ★★

제주직항전세기
몽골(4박5일)
출발일 : 7/10, 7/15, 8/5, 8/9, 8/13, 8/17, 9/23
패키지 1,590,000원
주요일정 몽골 노마닉전통체험, 칭기스칸 마동상, 테를지 국립공원(거북바위, 아리야발 사원) 초원승마, 자이승전망대, 간단사원

제주직항전세기
일본 돗토리-마츠에(2박3일)
출발일 : 7/10
패키지 1,090,000원
주요일정 톳토리 사구, 톳토리 모래 미술관, 요괴의 길(미즈키 시게루 로드), 마츠에 조잔공원, 하나카이로, 유메미나토 타워, 다치쿠에쿄 현수교

제주직항전세기
백두산(연길/3박5일)
출발일 : 7/20, 7/23, 7/26, 7/29, 8/1, 8/4, 8/7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백두산북파코스(장백폭포,노천온천지대), 서파코스(금강대협곡), 일송정, 윤동주생가

제주직항전세기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 : 10/8, 10/11, 10/14, 10/17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보봉호수(유람선포함), 천문산사 + 귀곡잔도+유리잔도, 전신마사지, 황룡동굴, 천문호선쇼, 천자산 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72기루, 금편계곡

2026년도 제주직항 전세기운용 일정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8차) : 5/7, 5/10, 5/13, 5/16, 10/8, 10/11, 10/14, 10/17
연길(백두산)(3박5일)
출발일(7차) : 7/20, 7/23, 7/26, 7/29, 8/1, 8/4, 8/7

몽골 울란바토르(4박5일)
출발일(8차) : 6/17, 7/10, 7/15, 8/5, 8/9, 8/13, 8/17, 9/23

필리핀
마닐라(4박5일)
출발일(9차) : 3/28, 4/1, 4/5, 4/9, 4/13, 12/17, 12/21, 12/25, 12/29

일본
이즈모(돗토리/2박3일) : 7/10

베트남
다낭(3박5일) : 11/19, 12/31
나트랑(3박5일) : 10/2, 10/6

공통사항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 불포함내역 : 부가세, 가이드 · 기사봉사료, 싱글차지, 매너팁, 선택관광경비, 기타개인비용 · 최소출발인원 10명기준 · 4성(준4성)이상 2인1실 ·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여행자보험 2억가입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전세기 전문여행사 Tourist Information Service 여행정보서비스 T. 064)746-690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90호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층

에이투 T. 064)742-799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336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층

» 여행정보서비스 바로가기